

www.afterschool.go.kr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학교 2016 8월호 온라인 Newsletter

발행인 : 김재춘 | 편집인 : 장명림 | 편집담당 : 정은주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전문가 칼럼

창의교육 패러다임으로 보는
방과후교육의 미래상

02
현장 속 방과후학교

더만족* 맞춤형 edu-care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통통이방 운영

03
현장 속 방과후학교

학교, 학부모, 지역이 함께
지력, 마음썸, 체력 키우기

04
함께여는 방과후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행복한 돌봄교실

05
방과후학교 소식

2016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박람회

06
알림

뉴스레터 원고모집



구독 신청
방법

매월 5일에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Click!

☰ 창의교육 패러다임으로 보는 방과후교육의 미래상

● 현대창의성연구소장 | 임선하

💡 방과후교육의 전개 과정



1995년에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우리 교육의 큰 틀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밖 교육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부분은 방과후교육이었다.

이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교육자도 당당히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교육자들이 학교에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1999년부터는 특기·적성 개발에 중점을 두는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운영 면에서 이전의 방과후 교육활동과의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로 개명된 2006년 이후 정부는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며,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주 5일 수업제 토요프로그램 지원사업, 방과후학교대상(大賞) 수여 사업,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부 지원사업,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사업, 초등돌봄 강화 사업, 방과후 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 사업 등이 그것들이다.

정부는 방과후학교를 통해 정규 교육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지역사회교육 구현, 방과후 방치되는 학생에 대한 돌봄 제공,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여성인력 활용 등의 정책 목표는 이를 예증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교육의 뿌리가 5·31 교육개혁안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몇 가지 아쉬움도 있다. 방과후교육은 과연 우리 교육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미래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혁적 성과를 달성했는지는 그래서 의문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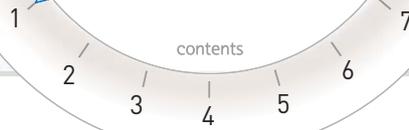
💡 현실에 갇힌 미래 : 방과후교육

교육부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방과후학교는 전국의 모든 학교(99.9%)에 개설되어 있다. 71.2%(446.8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돌봄교실 참가자 22.1만 명 별도). 단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율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정적인 한계이다. 최근 들어 법 제정의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방과후 교육의 독특성에 기인한다. 학교의 공적 시설을 이용하여 주로 학교밖 교육자들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 조직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조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의 대략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다(임선하, 2014).

[표-1] 방과후학교의 성격

성격 유형	학교와의 관계	강사의 성격
학교교육기능 보완	학교교육의 연장	역량있는 강사
돌봄 기능 확대	복지	복지사
교육격차 해소 (지역 내/지역 간)	학교 교육의 연장/보완	역량있는 강사
사교육비 경감	학교의 공적 기능 회복	사교육의 유능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강사로 활동



위에 제시된 방과후학교의 성격은 정규 학교가 의당 해야 할 일을 방과후학교에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 역할을 다하는 것이 곧 방과후학교의 존재 의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세계는 지금 미래형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하는 혁신적 교육 아이디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산업형 교육이 퇴조하고, 새로운 창의시대의 교육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31 교육개혁안에서 방과후학교를 도입한 정신일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Christensen(1997)의 ‘혁신자의 딜레마’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 존속성 기술과 파괴적 기술

존속성 기술 기반 혁신 sustaining technology	파괴적 기술 기반 혁신 disruptive technology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함 (현실 문제에 대한 대중적 접근)	기존 기술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함 (미래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접근)
기존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을 접근함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함
현실 위주 수요자 위주 현실 우선	미래 위주 공급자 위주 미래 우선
자율형학교(현행학교 개선형) 대안학교(현행학교 보완형) 미래학교(KEDI) 스마트스쿨(MEST, KERIS)	서울의 작은 학교 (개별적 존재 존중 작은 교육 공간) 하자센터(자유 공감 공간) 평생교육원(사회 속의 학습 조직) 홈스쿨링(가정 교육) Illich의 학습네트워크(네트워크) 도제형 교육 (중퇴 후 도제 교육 예:보아)

* Christensen(1997)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교육 장면을 구성함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 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존속성 기술 기반의 혁신이다.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파괴적 기술 기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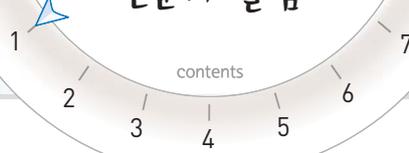
혁신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늘 파괴적 기술 기반의 혁신이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의 생각을 교육 장면에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계에서도 파괴적 기술 기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혁신자의 딜레마’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파괴적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가 조금씩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언제나 그렇듯이 이 새로운 기술은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의 완성된 아이디어(성공 기술)에 매달린다. 그럴수록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파괴적 기술 기반의 변화는 꽤 진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파괴적 기술이 출현하여 존속성 기술에 매달려온 교육자들을 당혹케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David(2009)이 말하는 ‘교육3.0’개념은 우리의 방과후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지를 보여준다.

[표-3] 교육 3.0 모델

구분	교육 1.0	교육 2.0	교육 3.0
의미	반아적기	사회적으로 구성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맥락적으로 재탄생
기술	교실문 앞에서 압수 (디지털 난민)	신중하게 채택 (디지털 이민자)	어디에나 (디지털 우주)
수업	교사가 학생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학생에게 (진보주의)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 사람-기술-사람 (협력 구성주의)
학교 소재지	빌딩(벽돌)	빌딩 또는 온라인 (벽돌 또는 클릭)	어디나 (사회에 깊이 침투; 카페, 볼링장, 술집, 직장 등)
교사	자격증 가진 전문가	자격증 가진 전문가	누구나, 어디서나
학교의 H/W와 S/W	비싸게 사거나 무시당하거나	오픈 소스 또는 저렴하게 구입	저렴하게 구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

* David(2009)



지금과 같은 틀 속에서 존속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과후교육은 좀 더 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해야 한다. 방과후학교는 미래의 교육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또 다른 기능과 성격을 대안적으로 실험하는 조직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현재에 갇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방과후학교는 새로운 교육을 실험하는 공간이 되어 지역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표-4] 방과후학교의 실험적 기능과 성격

성격 유형	학교와의 관계
새로운 교육 실험 공간	제2의 학교, 또 하나의 학교, 오후학교 등의 개념을 갖는 새로운 교육 실험의 공간으로 학교와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지역사회학교 실현	평생교육 사회를 맞아 지역 사회의 교육 허브로서의 기능 수행 조직

▶ 맺는 말

금년 6월 대구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2016년도 한국교육학회연차학술대회에 방과후학교학회 기관 세션에 참석한 동국대학교 김성훈 교수의 의견은 의미있다. “나는 방과후교육은 미래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참고문헌

교육부(2014), 방과후학교 통계자료
방과후 학교 포털 www.afterschool.org
임선하(2014), 방과후 교육을 생각한다, 한국창의력교육발전 연구회 제1회 세미나 발표논문, 2014년 4월 17일
Christensen, C.(1997), The innovator's dilemma, Boston:HBSP
David,B.(2009) Education 3.0, [www.davidbill.org/archives/443\(2009.5.11\)](http://www.davidbill.org/archives/443(2009.5.11))





더만족+ 맞춤형 edu-care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통통이방 운영

● 대전 가장초등학교 교감 | 박 현 수



대전 도심의 번두리에 위치한 대전가장초등학교는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자녀들의 비율(17.5%)이 높은 편이며, 이들 대부분은 방과 후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가정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정서가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은

편이다.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사랑과 관심으로 따뜻하게 학생을 보살피고자 더만족+ 맞춤형 edu-care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통통이방 운영을 하여, 학부모는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즐겁게 돌봄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운영 개요

유형	운영시간	운영교실	학년별 참여인원(명)						운영인력		
			1	2	3	4	5	총			
아침	07:00~정규수업전	전용1실-꿈사랑방	3	5	5	0	2	15	본교교사1명		
오후	정규수업후 ~17:00	꿈사랑(전용1)	1	16	6	2	3	28	전용 (2)	12:30~17:00	돌봄전담사2명
		행복이(전용2)	15	9	-	1	-	25			
		희망이(겸용1)	16	4	-	-	-	20	겸용 (3)	12:50(13:30) ~16:00	돌봄도우미3명
		사랑이(겸용2)	16	4	-	-	-	20			
		꿈나래(겸용3)	-	20	-	-	-	20		16:00~17:00	본교교사3명
		꿈나무(겸용4)	-	-	19	2	-	21			
총 6 실		48	53	25	5	3	134	겸용 (1)	13:50(14:40) ~17:00	본교교사1명	
저녁	17:00 ~20:30	전용2실 -꿈사랑방 -행복이방	9	17	6	3	3	38	돌봄전담사2명, 관리교사2명		

※ 아침-저녁돌봄 참여대상: 오후돌봄 참여학생 중 아침-저녁돌봄이 필요한 학생

📖 활동 내용

1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edu-care 행복통통이방 운영 프로그램

맞춤형 edu-care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육이다. 본교 1~2학년의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

운영은 대상의 선정과 모집방법, 운영장소, 운영인력 및 운영시간, 학생관리 등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분	내용					
대상선정	본교의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학생 중 맞벌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 전원					
운영내용	아침돌봄 (07:30~08:30)	돌봄전용교실1실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 한해 조식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본교교사 5명(요일별로) 			
	오후돌봄 (방과후~17:00)	돌봄겸용교실 5실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로 편성(1학년 3개반, 2학년 2개반, 3-4학년 1개반)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 주제활동, 개인활동 등으로 운영함 간식 제공 돌봄전담사 2명, 돌봄도우미 3명, 본교교사 5명 			
	저녁돌봄 (17:00~20:30)	돌봄전용교실 2실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년별로 편성(1학년 1개반, 2학년 1개반) 운영 석식 제공 돌봄전담사 2명 			
오후돌봄 프로그램 운영시간표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2:50~13:30	알림장 확인 과제지도	정규수업	알림장 확인 과제지도	정규수업	알림장 확인 과제지도
	13:30~14:20	개인자율활동	알림장 확인 과제지도	개인자율활동	알림장 확인 과제지도	개인자율활동
	14:20~15:10	주제활동	개인자율활동	주제활동	개인자율활동	주제활동
	15:10~15:40	간식(30')	간식(30')	간식(30')	간식(30')	간식(30')
	15:40~16:30	특기·적성활동 "컴퓨터교실"	특기·적성활동 "편편미술"	특기·적성활동 "놀이스포츠"	특기·적성활동 "놀이한자"	특기·적성활동 "창의쑥쑥"
	• 운영인력 운영장소 • 프로그램 개요	• 돌봄전담사1 컴퓨터실 • 컴퓨터 활용 능력신장	• 외부강사 각 돌봄교실 • 신나는 미술 체험 활동	• 본교강사1 한울관 • 다양한 신체 활동	• 본교강사2 각 돌봄교실 • 창의 인성 한자교육	• 돌봄전담사2 각 돌봄교실 • 재미있는 과학탐구교실
	16:30~17:00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저녁돌봄 프로그램 운영시간표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7:00~17:20	튼튼 국어	개인자율활동	튼튼 창의	튼튼 한자	개인자율활동
	17:20~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18:00~18:40	저녁식사	지역사회연계 특기적성활동 나는야 튼튼이	저녁식사	지역사회연계 얼쑤! 사물놀이	지역사회연계 특기적성활동 나는야 튼튼이
18:40~20:30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개인자율활동 (귀가지도)	



▲ 아침돌봄 조식제공



▲ 오후돌봄 활동모습



▲ 오후돌봄 활동모습



▲ 저녁돌봄 활동모습

2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edu-care 행복통통이방 활동 모습

가. 맞춤형 edu-care 프로그램 활동 모습



컴퓨터교실



편편미술



놀이스포츠



놀이한자



창의썩썩

나. 방과후학교 연계형 edu-care 돌봄교실 활동 모습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 개인 스케줄



개인자율활동

다. 교사동아리 활용 프로그램 운영



3D프린터로 놀아요



스마트로봇은 내친구



스마트기기로 공부해요



행복통통이방을 운영하면서

1 정부에서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왔다.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하고 관리하는 돌봄전담사를 단순한 돌봄교실 관리에서 벗어나 돌봄교실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연수를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다.

2 학교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용하여 운영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다.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참여하면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교실의 운영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학교, 학부모, 지역이 함께 지력, 마음씀, 체력 키우기

• 광주 봉산초등학교 교사 | 김유리



봉산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에 위치해 있는 42학급, 1,35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이다.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주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59%)를 하고 있어 부모가 직접 자녀의 학습지도를 도와주지 못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돌봄교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가정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용교실 2개실, 겸용교실 3개실로 모두 5개실을 운영하고, 대상 학생 수는 1~2학년 95명,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4명으로 총 99명이다. 본교에서는 T(thinking).H(heart).E(experience) care program을 활용하여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심신안정과 체력, 지성을 가꿀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알차고 안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생각 쓱쓱!(Thinking) 프로그램을 통해 지력을 키우다.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을 돌봄교실에 맡기므로 기본 학습 능력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평소 가정에서 과제를 확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한글 사랑 프로그램'과 '창의 수학' 프로그램을 통해 채워나갔다. 돌봄전담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지를 준비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숙제와 이해도를 점검해주었다. 주중에는 영어, 중국어,

한자, 북아트 프로그램을 주 1회~2회 운영하였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 놀이 위주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시간처럼 준비했다.



과제가 일찍 끝나는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만들기를 하는 등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돌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아이들이 방과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받을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Thinking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 적절했다. 그래서 교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이었다.

📌 마음 넉넉!(Heart)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씀을 키우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한 보호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돌봄교실에 맡겨진 아이들은 가정의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학교 품에 맡겨진 상태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처럼 편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고정 강사를 두고 환경구성에 신경을 쓰는 반면 아이들의 마음씀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나눔 프로그램, 보드게임, 창의 미술, 안전교육 등 아이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행동해 볼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해서 하다보면 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한다.



돌봄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가장 바라는 점은 아이들이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전담사와 함께 돌봄교실의 취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설 및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후 수요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보호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기술하였다. 아이들 또한 조금 덜 산만해지고 주어진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 튼튼! & 체험(experience)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을 키우다.

보통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주로 '건강이 제일이다.'라고 한다. 그만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약해졌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식습관의 변화도 있지만 활동량 부족도 한 몫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정말 좋아한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교과 1위가 체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돌봄교실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더구나 저학년일수록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장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탄짓을 하게 되고 결국

떠들다가 혼나곤 하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 어떤 교사들은 교실 내에 놀이 공간을 만들어두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프로그램 속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생활체육, 무용, 전래놀이, 뉴스포츠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몸으로 직접하는 체험활동도 중간중간에 넣었다.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학생, 학부모 모두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이 힘을 합치니까 되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맞벌이가 많은 본교의 특성상,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늘어감에 따라 돌봄 전담사와 본교 교사만으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힘들게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차에 교육청을 통해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 랄랄라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계약을 체결했다. 랄랄라스쿨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 내 학교에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는 기관이다. 돌봄전담사가 있는 1실과 2실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3~5실은 랄랄라스쿨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간식이나 프로그램의 영역, 돌봄의 내용 등은 1~2실과 계속 조율하여 운영하였다. 랄랄라스쿨에서도 본교의



돌봄전담사처럼 상주하며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는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따로 고용하여 아이들의 다양한 발달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간식은 함께 준비해서 돌봄 1~2실과 3~5실에 동일하게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영역 및 계획은 서로 공유하여 한 영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학교에서만 운영을 책임질 때는 교사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는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고정인력이 있음에 따라 돌봄교실이 본연의 씬이라는 목표에 보다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기부를 통해 알차게 배워요!

교사와 외부강사 프로그램 외에도 돌봄 학생들이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육기부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다.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부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짜여진 프로그램 밖에 없었다. 돌봄교실 대상 학생인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았다.

고민 끝에 학부모님 중에서 교육기부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없을까? 하며 찾아보았다. 작년 학교 설문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문 조사를 했던 학부모 다섯 명에게 연락을 하였다. 그 중에 한 분이 흔쾌히 돌봄 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였다. 이 분은 다른 학교에 방과후강사로 출강할 정도로 다방면에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였다. 제대로 된 재능 기부 수업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계획을 수립하고 재료를 구입했다. 아이들이 과연 좋아할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첫 수업부터 아이들은 너무 흥미로워했다. 공예 수업이었는데 질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더 좋아했다. 그런 훌륭한 재능을 무료로 제공해준 학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내 상담 선생님에게도 부탁하여 돌봄교실 아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라 개별적인 상담도 유의미했다. 이 외에도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학생 개인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지도 부분을 보완했다. 아이들이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대학생 형들이 오니까 더 좋아해서 효과가 좋았던 것 같다. 학생들의 돌봄이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사회 단체에도 연락을 해보았다. 그 중에서 사랑의 열매에서 방학 중에 8시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기로 했다.

📌 방학 중에도 쭉~ 돌봐요!

방학이 되면 학기 중보다 돌봄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다. 오후 시간에도 직장 때문에 돌볼 수 없었던 부모에게 오전 시간부터 아이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기존의 인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 프로그램을 신청하곤 한다. 그런데 인건비나 인력 문제로 오전부터 돌봄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했던 시간만큼 운영하기도 힘들고 프로그램도 본교 교사가 들어가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학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체험학습을 늘리고 본교 방과후 강사의 교육기부를 활용하자는 생각을 했다. 다행히 강사의 도움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기본 돌봄으로 구성했다. 또 돌봄 신청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체험학습을 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찾아가는 체험, 찾아오는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다.



부모의 빈자리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방학, 우리 학교 돌봄교실 아이들은 그래도 방황하지 않고 나름 편안하게 보냈으리라고 믿는다.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라도 그 아이들의 빈 시간을 채워줘야지하고 생각해본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행복한 돌봄교실

●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임정숙

 움직임을 통한 놀이상담 프로그램(놀Go, 친해지Go, 행복해지Go)을 만든다.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양평의 유일한 아동, 청소년전문 기관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운영, 지역사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관 네트워크, 위기청소년지원, 폭력예방사업, 인성교육, 문화예술, 동아리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기도의 군 단위 지역 중 하나로 초등학교 22개교 7개의 지역아동센터,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있다. 지역의 청소년을 주로 만났던 기관에 점차 초등학생들이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초등학생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힘들어요!!, 짜증나요!!”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특히 관계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끼길 원한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들으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움직임을 통한 놀이상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30년동안 무용동작치료사로 활발하게 활동한 레나코른블럼(Rena Kornblum)의 움직임을 통한 폭력예방 프로그램 - ‘평화를 향한 움직임’의 주제(공간인식, 사전행동능력, 분노와 자기조절, 공감형성, 에너지조절)에 맞는 다양한 움직임놀이로 특별히 저학년들을 신체 움직임놀이와 상담적 개입으로 기능적 향상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놀면서 친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다른 돌봄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로 볼 수 있다.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지역전문가가 함께 준비하다.

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할 때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에 돌봄교사 연수, 학부모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학교에서는 지도자와 돌봄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연결된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본과 심화과정을 통해 관내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기적인 스터디활동을 통해 평화로움과 행복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부모교육, 돌봄교사 연수 등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평화로운 관계, 평화로운 교실, 평화로운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자 교사와 학부모, 지역전문가가 함께 노력하였다.



 돌봄교실의 문을 두드리고 지역 내 방과후교육을 만들어내다.

2012년 놀이상담프로그램(놀Go, 친해지Go, 행복해지Go)으로 관내 교육청을 통해 초등12개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10회기를 시작으로 2013년 22개교, 2014년 12개교, 2015~2016년 12개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돌봄교실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 심리 정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아이들은 놀고 싶어하고 놀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놀이를 통해 관계를 맺는다.'라는 사실이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 뿐만아니라 지역 내 곳곳에 이러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고,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센터 이용아동,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드 아이들과 함께 공예·연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방과후 강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한 명으로 놀이와 상담, 놀이와 예술을 통해 아이들과 관계맺음으로 좀 더 평화로운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배움을 통해 나눔의 주체로 무대에 서다.

지역공간에서 이루어진 방과후활동은 당일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표현하는 장으로 너무도 즐겁게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행되면서 자율성과 표현을 통한 길어지는 집중의 시간, 협동의 모습들은 진행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 과정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아이들의 작품과 작품속 스토리로, 작지만 가장 멋진 공예작품 전시회와 아이들이 주인공인 작은 연극 무대를 통해 아이들은 배움을 통해 나눔의 주체로 자신들의 무대에 주인공의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변화와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욱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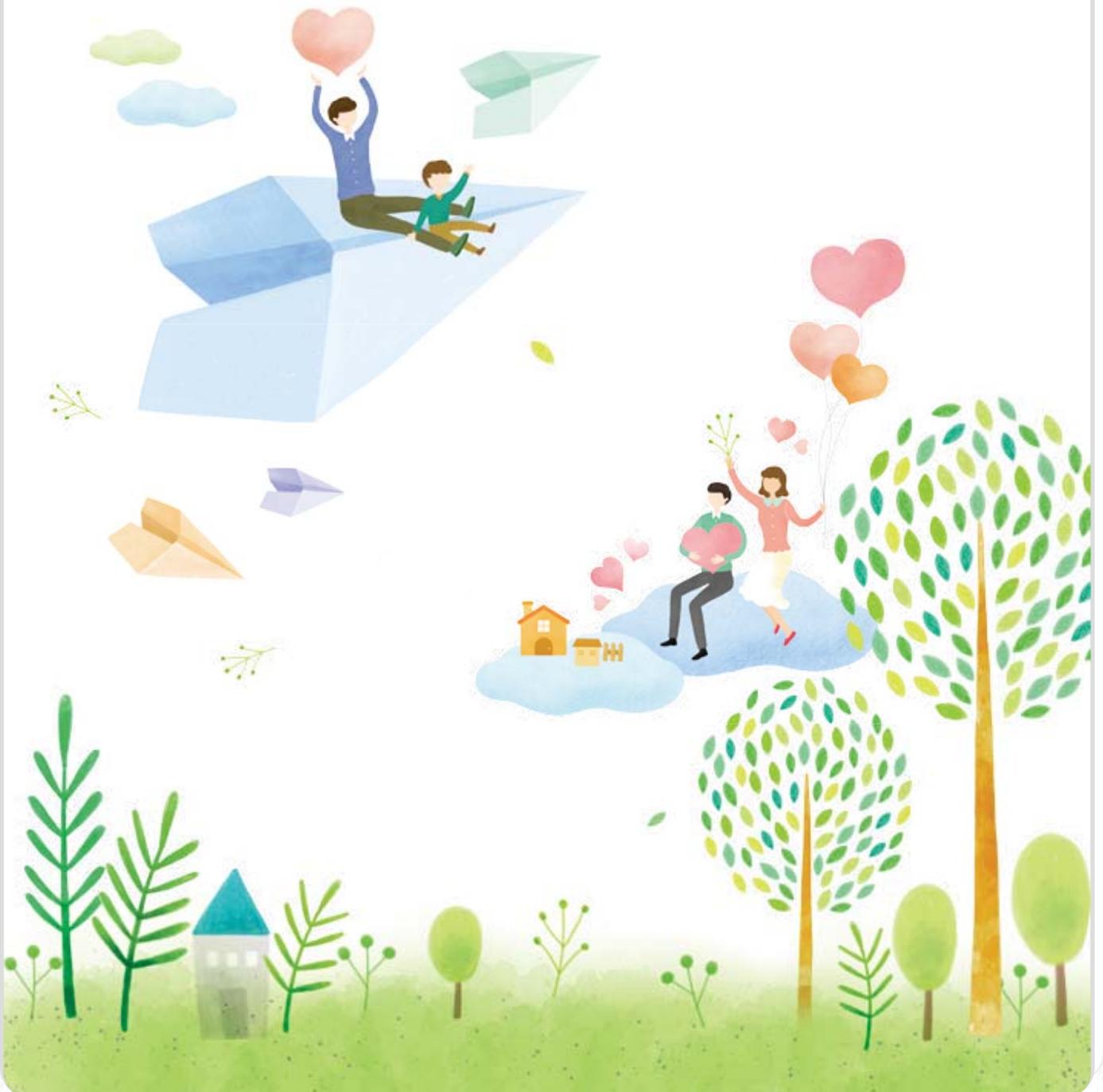




9월 행사 알림

● 2016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박람회

- 일 시 : 2016. 9. 22(목) ~ 9. 25(일), 10:00 ~ 17:00
- 장 소 : 부산 BEXCO 제2전시장 5A홀





알림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9월호 원고 모집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2014년 7월부터 매월 웹진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원고 제출 기간은 2016년 8월 22일(월)까지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유관 기관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을 둔 학부모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해당 이메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2 모집 분야

번호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자(전문가) 칼럼
2	현장 속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 소개,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3	함께여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이용후기
4	방과후학교 소식	지역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행사 및 연수 안내

3 배포 대상

-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원고 집필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신청자 (교사, 강사, 학부모, 학생 등)

4 제출 방법

- 원고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원고투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정보마당-자료실-'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원고 투고 신청서 양식' 참조

5 제출처 및 연락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정은주 연구원(ej912@kedi.re.kr/02-3460-0686)

6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